

이고, 많은 후학들에게 애국 애족의 자주 정신을 심었다.

선생이 친필로 써서 지장 바위에 새겼다는 “기봉강산 홍무일월”이란 글도 우리 나라가 이미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독립한 대한 제국임을 강조하여 쓴 글이다.

또한 지장암(指掌巖)앞에 세운 유희비의 내용도 바록 유배지 나마 나라를 걱정하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공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이 유희비는 그 때 당시 제자들이 어떤

이유로 세우지 않았는지는 모르나, 그 후 흑산면 면의회 2대 의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하여 세워 둠)

면암은 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리 선영(先塋)에 모셔졌으며, 후손들이 세운 묘덕사(墓德祠)라는 사당이 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은 사후 1962년 3월 10일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을 받았으며, 지금도 흑산면 예리 2구(淺村里)에는 면암의 자필로 된 비문이 남아 있다.

## 향토 문화

# 입해도의 대몽항쟁

編輯者

전라도 지방의 다른 지역과 달리 몽골과의 전투가 있었던 신안군은 강화도로 연결되는 서해상의 해상 수송로를 놓고 격전을 벌인 곳이다.

고종 43년(A·D 1232년)몽골의 차라대가 침입해 왔을 때 압해도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몽골군은 본대로서 전남 내륙 지방을 공략하면서 다른 부대로서 서해안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려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몽골과 고려 양국간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강화도 정부를 위협하여 육지로 내몰기 위한

전략이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몽병이 배를 만들어 조도(槽島)를 쳤으나 이기지 못했다.”

“충주도(忠州道) 순무사(巡撫使) 한취(韓就)가 아주(牙州)의 해도(海島)에 있으면서 선박 9척으로 몽병을 쳤다.”

“장군 이천(李阡)에게 주사(舟師) 200여 인을 주어 남도(南道)에서 몽병을 막게 했다.”

“장군 이천이 온수현(溫水縣)에서 몽병과 싸워 수십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100여 명을 구출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서해안의 수송로를 장악하려는 몽골군과 이를 보호하려는 관군의 공방전을 기록한 것이다.

몽골군의 압해도 공격 역시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압해도 전투는 겉으로 보기엔 대몽 전략의 핵심이었던 해도 입보책(海島 入保策)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해상 수송로의 장악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 절요」 17 고공 43년 6월의 기록에 보면,

낭장 윤춘이 몽골군으로부터 돌아왔다. 윤춘이 반하여 몽골에 들어간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 이 때에 와서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중략)

‘차라대가 일찍이 수군 70척을 건너려 깃발을 늘어 세우고 압해를 치는데 저와 한 관인을 시켜 다른 배를 타고 싸움을 독려하였습니다. 압해 사람들이 대포 2개를 큰 배에 장치하고 기다리니, 양편 군사가 서로 버티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라대가 언덕에 임하여 바라보고 저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 배가 대포를 맞으면 반드시 가루가 될 것이니 당할 수 없다’ 하고, 다시 배를 옮겨 치게 하였으나 압해인들이 곳곳에 대포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몽골인들이 드디어 수공(水攻)의 장비를 파하였습니다.(후략)” 라고하여 압해도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압해도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서해안에 남쪽으로 길게 뻗은 연안 도서로 이 섬을 몽골군이 장악하게 되면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나아가 강화도 정부와 전남 지방의 곡창 지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이에 충분한 대비를 하였고, 도민이 합심하여 몽골군을 물리쳤던 것이다.